



生活之音

생활지음

김상연

2020. 07. 02. ^{THU}

2020. 07. 31. ^{FRI}

1. 전시개요

전시제목 | 생활지음[生活之音]: 김상연

전시기간 | 2020.7.2 (목) ~ 7.31 (금)

전시장소 | 카린 (구. 갤러리 메르씨엘비스)

관람시간 | 11:00AM ~ 07:00PM

문의전화 | 051.747.9305~6

2. 전시내용

카린에서 중국의 수인판화를 연구하고 이를 현대미술에 접목한 김상연 작가의 작품을 공개하는 생활지음[生活之音]展을 개최합니다.

중국의 전통판화 기법인 수인판화를 20년이상 고민하고 노력한 작가의 철학적 결과물에 가까운 '수인회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김상연작가는 서양화로 미술에 입문하였지만 그가 예술을 수련한 시기인 1980년대 중후반 한국은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혼돈과 아픔의 도가니였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동양인으로서 동양철학을 이해하고, 그 철학을 예술적 조형언어로서 표현해 낼 방법을 찾기위해 중국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는 그렇게 심양 노신대학에서 현대 수인판화를 배운 후 국립중국미술대학에서 습인 수인판화를 공부하게 됩니다.

중국 전통 수인판화는 어려운 기술과 습득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조차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판화기법이었는데, 운 좋게 전통 기술자에게 2년동안 각과 찍는 기법을 습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습인수인판화는 서양 프레스 기법과 다르게 크기와 판을 규격화할 필요없이 문지르는 방식에 기초하여 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찍는기법이다. 물을 흡수하는 종이, 물을 머금은 목판, 물을 찍는 속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무엇보다 수인판화는 물을 통제할 수 있어야한다고 한다.

그렇게 작가는 국립중국미술대학 판화과에서 동양인쇄술의 꽃으로 알려진 수인판화를 익힌 후 2000년 고향 광주로 돌아왔다. 중국에서 혹독한 배움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작품은 판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회화, 수인목판화, 드로잉, 목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통해 인간적 욕망과 해원을 풀어내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3. 작업노트

현시대는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한 시대이고, 인간이나 모든 사물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고 있다. 현대 판화기법 또한 과학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표현의 확대를 가져왔다.

하지만 한편으로 과학기술은 인간이 이 시대에 적응하는 것보다 빠르게 발전하였다. 인간이 행복한 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할 토대를 만들기도 전에 고통스런 물질적 무게의 산물만 만들어 이것에 짓눌려 살아가게 되었다.

인간이 미처 시대에 대처하지 못하는 예기치 않는 철학의 부재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북극의 눈이 녹듯 그만큼씩 우리의 지적문화수준과 삶의 지혜가 점점 얇아지고, 반대로 서로간의 불신과 이기심만 높아져 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의 옷을 찾아 동양철학을 배우고자하는 의지였고, 이를 미술실행에 옮기는 짧고 효과적인 방법이 동양의 수인판화를 배우는 것이었다.

나의 습인수인판화예술은 이런 철학적 문제의식으로 부터 출발한다. 동양의 수인판화는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과 밀접한 도구선택의 관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인간본성의 인성을 갈고 닦는데 중요한 재료이다.

기계로 일정한 압력을 조절하여 찍는 서양의 압력인쇄기술과는 다르게, 문지르는 방식의 수인판화 인쇄방법은 작품의 크기와 판을 규격화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것은 서양판화의 기계에 의존하여 찍는 것을 뛰어넘어 인간의 초감각적인 자기 절재를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의 인쇄기술이다. 여기에는 인간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철학이 숨쉬고 있다. 동양철학 중에서 나와 物이하나物我一體가되는 노장철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하다.

그리고 화면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구도법 - 판각기술 - 인쇄기술등을 학습하는 과정은 살아 숨쉬는 동양철학의 일부분이다. 이는 축적된 수많은 경험적 지혜들을 공부, 단련하고, 이를 뛰어넘어 내공이 쌓여서 삶의 지혜가 혼합된 것이 수인판화이다. 이 모든 것이 서양의 지식습득방법과 달라 동양수인판화는 인간에게 아주 필요한 삶의 풍요로운 지혜를 가르친다. 이것이 나의 행복한 판화 만들기 이고 삶이다.

이후 2001년 한국에 돌아와 현대 과학과 동양의 수인판화를 접목하고 연구하는데 근 20여년이 걸렸다. 이게 바로 최근에 전시장으로 나오게 된 수인회화이다. 이 수인회화는 동양의 전통수인방법과 현대 회화를 접목하여 다시 디지털화하는데 여기에서 동양화 표현기법의 중요한 요소인 濃淡干濕을 기운으로 나타내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는 서양의 옹고 그림의 이분법적문제가 아닌 그 중간에 존재하는 기와 운을 표현한 것이다.



김상연, 존재-손, 184x134cm, 2018, 종이위에 수인화



김상연, 존재, 75x56cm, 2019, 종이위에 수인화



김상연, 봄봄, 140x68cm, 종이위에 수인판화



김상연, 기억의 방, 140x68cm, 종이위에 수인판화



김상연, 나는 너다, 50x30x6cm, 나무문자각

김상연 Kim Sang Yeon



학력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학사 졸업
국립중국미술대학 판화과 석사 졸업

개인전

- 2019 포스코미술관(서울)
수류헌(진주)
- 2018 오픈스페이스 배(부산)
- 2016 기당미술관(제주)
- 2015 신세계갤러리(광주)
- 2014 마이클&용갤러리(광주)
- 2013 마이클숏갤러리(독일-베를린)
- 2012 일단원갤러리(중국-북경798)
- 2011 마이클숏갤러리(서울)
- 2010 마이클숏갤러리(서울)
- 2008 센마리팀의회당 대전시실, 프랑스-루앙)
- 2007 롯데갤러리(광주)
- 2005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서울)
- 2004 전남도립미술관(전남)
- 2003 신세계갤러리(광주)
- 2002 신세계갤러리(광주)

- 2001 기노구니아갤러리(일본-나고야)
신세계갤러리(광주)
- 2000 오스카갤러리(일본-동경)

단체전

- 2019 <각자의 시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
<컨템포러리 아트 인 남도 2019> 담빛예술창고(담양)
<동시대 미술, 역사를 말하다> 산수미술관(광주)
<종이충격> 양평미술관(양평)
- 2018 <아트애틀홈 II : 예술이 가득한 집> 신세계갤러리(광주)
<필문 이선제 묘지(墓誌) 20년만의 광주 귀향 특별 콜라보> 국립광주박물관(광주)
<남도문화의 원류를 찾아서-보길도> 신세계갤러리(광주)
<한·프랑스 교류 11주년 'COREELATION 4'> 지호갤러리/무등갤러리(광주)
<복(福) 받으시개(犬)> 신세계갤러리(광주)
- 2017 <꼬레라송(COREELATION)3-화실> 센마리팀의회당(프랑스-루앙)
<대구-인 텍트> 대구문화예술회관(대구)
<장소예찬-예술가와 여관> 여관프로젝트(제주)
- 2016 <브릴리언트메모리즈-동행>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서울)
<브릴리언트메모리즈-동행> 광주시립미술관(광주)
<프랑스문화원/파리도서관 한국전시>(프랑스-파리)
- 2015 <openbooks - 예술가와 그들의 중국책> 온주현대미술관(중국/인도/홍콩/캐나다/미국)
<아시아현대미술> 전북도립미술관(완주)
<1980년 한국형상미술전> 전북도립미술관(완주)
<어린이성찬> 전북도립미술관(완주)
- 2014 <빛> 유네스코본부 전시장(프랑스-파리)
- 2013 <all about korea> 화이트박스미술관(독일-뮌헨)
<생명의 빛 아시아> 아시아문화예술인레지던시(광주)
<남도 원류를 찾아서> 신세계갤러리(광주)
- 2012 <원점의 심도> 상해미술관(중국)
<무등설화> 금일미술관(중국-북경)
- 2010 <지역네트워크전시> 아르코미술관(서울/광주/부산)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빛2010> 광주시립미술관(광주)
<12띠 동물 이야기> 광주시립미술관(광주)
- 2009 <우보만리> 신세계갤러리(서울)
<환경미술제> 신세계갤러리(광주)
<지심도> 거제문화회관미술관(거제)
<한국의 단면> 대만국립미술관(대만)
<오즈의 마법사> 신세계갤러리(광주)
<지역네트워크전시> 아르코미술관(서울)

- 2008 <김환기 국제미술제> 빛 갤러리(서울)
 <미술과 놀이>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서울)
 <컨템포러리 네오 메타포 2008> 인사아트센터(서울)
 <광주 미술의 현황과 전망> 인사아트센터(서울)
 <화랑미술제> 벅스코(부산)
 <역대 지역 참여 작가 근작전시> 광주비엔날레홍보자료관(광주)
 <전라도> 롯데갤러리(광주)
 <운주사 천불 천탑> 신세계갤러리(광주)
- 2007 <질투는 작업의 힘, 작업은 열정이다> 대안공간충정각(서울)
 <스페인 아르고 특별전 한국-이야기를 펼치다> 마드리드문화체육부미술관(스페인)
 <성남 국제 북 아트페어> 울릉공원 책 테마파크(성남)
 <부산국제판화제> 부산시청(부산)
 <宋庄국제미술제-예술연접> 宋庄미술관(중국-북경)
 <꼬레라송(COREELATION)> 센마리팀의회당(프랑스-루앙)
- 2006 <열풍변주곡-자연과 몸> 광주비엔날레(광주)
 <북 아트> 코엑스(서울)
 <과거와 현재, 그 사이> 광주시립미술관(광주)
 <산전수전> 거제문화예술회관미술관(거제)
 <세계 북 아트 페어> 프랑크푸르트미술관(독일)
- 2005 <조용한 빛, 맑은 기운> 예술박물관(중국)
 <made in gwangju> 광주시립미술관(광주)
 <환경미술제> 옥과미술관(전남)
 <수목화의 흐름> 관산월미술관(중국-심천)
- 2004 <생로병사> 광주시립미술관(광주)
 <꿈꾸는 동화세상> 롯데갤러리(광주)
 <바라보기-자아> 광주시립미술관(광주)
 <세계 북 아트페어> 코엑스(서울)
 <세계 북 아트페어> 프랑크푸르트미술관(독일)
- 2003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 광주시립미술관(광주)
 <uncanny-어떤 낯섬> 라메르갤러리(서울)
 <광주 20경> 신세계갤러리(광주)
 <작가와 그림책> 롯데화랑(광주)
 <중국기행 3,256km> 신세계갤러리(광주)
- 2002 <젊은 예술가의 초상> 신세계갤러리(광주)
 <비상21전> 남도예술회관(광주)
- 2001 <형상과 비판> 무등예술관(광주)

CARIN

C o n t e m p o r a r y A R T I N s t i t u t e

갤러리 메르씨엘 비스는 2020년 4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2013년 오픈하여 국내외 다양한 작가와 작품을 소개해 온 갤러리 메르씨엘 비스는 bis를 떼어 내고 보다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전개해 나아가고자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Contemporary ART INstitute의 의미를 가진 현대미술연구소 CARIN 카린은 일본 법인 cal.net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문화 예술의 전도자로 역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코리안 아트 파워를 세계에 널리 알리며, 세상의 재미난 요소를 지역에 소개하는 다양한 취임을 기획해 나갈 예정입니다. 카린은 갤러리의 경계를 넘어, 산업과 예술의 멋진 취임을 지원하고 기업과 아티스트를 연결하며 세계에 흐르는 예술의 감각을 고객에 전달하는 사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